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축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방향

강만익*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목축문화 자원
- III. 목축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방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들어 제주지역에서 목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시행된 <말산업육성법>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될 경우, 예산지원을 받아 말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함께 농촌 소득증대 및 관광산업 진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마와 목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는 목축문화와 목축민(테우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문화관광과 생태관광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전통적 목축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구축에 대한 논의역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바다에 해녀가 있다면 중산간 초지대에는 테우리가 있다. 그 동안 해녀에 대해서는 제주도청 차원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녀들에 대한 연구지원과 심지어 해녀박물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해녀들에 대한 생애사를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목축문화와 테우리[牧子]에 대한 조명작업은 아직까지도 대단히 미흡한 감이 있다. 목축문화를 창출한 주체였던 테우리들 역시 고령화되면서 목축에 대한 전통지식들이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목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 계승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목축문화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콘텐츠 구축에 필요한 원천자료로 목축문화와 테우리들(목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연구결과를 어떻게 문화콘텐츠화하여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목축문화’라는 제주지역의 ‘오래된 전통’에 주목하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여 목축문화자원의 종류를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목축문화 콘텐츠 구축방향에 대해 시론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최근까지도 마을단위 축산업의 기반이었던 마을 공동목장이 점차 골프장이나 농경지로 변모한 결과, 세대간 목축문화 전승이 단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멸되고 목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의 목축문화는 제주도민들이 한라산지 중산간 지대를 기반으로 우마를 사육하며 만들어 놓은 다양한 생활양식(도구·기술, 조직·제도, 관념·상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제주도 목축문화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면,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1966)는 제주지역의 방목형태를 종년방목, 계절적 방목, 전사(全飼)로 구분해¹⁾ 종년방목이 가장 일반적인 방목형태라고 주장했다. 고헤민(1996, 1998)은 테우리(목자)들의 목축의례인 '테우리 코시'에 주목해 테우리들이 백중날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준비하여 마을 공동목장이나 바령밭, 목장 내에 위치한 오름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음을 밝혔다.²⁾ 또한 제주시 영평동·애월읍 소길마을과 서귀포시 색달마을의 목축사례를 통해 '꽃치기'와 '번치기'라는 목축방법을 제시했으며,³⁾ 『제주도민일보』(2010~2011)를 통해 방앗불 놓기, 바령쇄, 꽃쇄, 번쇄 방목문화에 대해 소상히 소개해 목축문화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영배(1992, 1993)는 각 마을과 가문별로 이루어졌던 우마 낙인에 주목해 낙인의 자형을 밝혔다.⁴⁾ 좌동렬(2010)은 전근대 제주지역의 다양한 목축의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의 관점에서 낙인코시, 귀표코시, 밭털리는 코시, 백중의례의 의미를 제시했다.⁵⁾ 강만익(2013)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목축문화요소를 중심으로 목축문화의 역사적 기원에 주목했다.⁶⁾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조선왕조실록』, 『남환박물』, 『탐라지』, 『제주읍지』 등의 고문헌 자료 및 여러 마을에서 발간된 『마을지』 등에 나타난 목축문화 요소들을 콘텐츠 구축을 위한 원천자료로 고찰했다.

II.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축문화 자원

1) 泉靖一, 1966,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94~101쪽. 여기서 종년방목이란 연중 방목을 의미하며, 계절적 방목은 봄부터 가을(4월~10월)까지는 마을 공동목장에서 방목한 다음, 겨울이 되면 마을로 우마를 데려오는 목축형태이며, 전사(全飼)란 집에서 연중 사육하는 형태를 말한다.

2) 고헤민, 1966, 「목축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318~319쪽.

3) 고헤민, 1998, 「제주도 우마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통권 102호8 ; 고헤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꽃치기'란 삼립 속에서 우마를 놓아기르는 방목형태이며, '번치기'란 주민들이 순번을 정하여 우마를 돌보는 방목형태를 의미한다.

4) 이영배, 1992, 「제주마 낙인의 자형 조사(I)」, 『조사연구보고서』 제7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_____, 1993, 「제주마 낙인의 자형 조사(II)」, 『조사연구보고서』 제8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5) 좌동렬, 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6) 강만익, 2013,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경인학술총서 105), 경인문화사, 271-291쪽.

최근 들어 영화, 음반, 게임,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전통문화가 멀티미디어 정보기술과 접목되는 현상에 주목한 것으로, 다양한 원천자료를 토대로 한 콘텐츠 개발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제주지역 목축 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해 필요한 원천자료들인 ①자연환경, ②목장사(牧場史), ③목장유적(유물) ④목축문화, ⑤인물, ⑥목축의례 ⑦제주마와 흑우 등에 대해 각각의 의미를 중심으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축지 자연환경 자원

제주지역 목축문화는 한라산지 자연환경의 산물이었다. 한라산지는 일반적으로 해안지대(0~200m), 중산간 지대(200~600m)와 산간지대(600m 이상; 한라산국립공원)로 구분되며, 이중 산록부인 중산간에는 목축의 토대인 넓은 환경사지(용암대지)와 자연초지가 분포해 이곳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 일제시기에는 마을 공동목장이 입지했다. 심지어 산정부에도 ‘高山草原’이 형성되어 ‘상산 방목지’로 이용되었다.⁷⁾

한라산지에는 2차 초지대·오름(측화산)·하천·삼림지·꽃자왈·화산회토·완사면이 발달해 있다. 이 중 오름(측화산)들은 방풍 기능과 함께 여름철 방목지나 우마들의 방목상태를 관찰하는 '망동산'으로 이용되었다. 이곳에는 방목 우마를 위협하는 짐승이 없어 목축에 유리했다. 중산간 지대부터는 해발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크며, 강수량과 구름이 많고 바람도 강하나, 낮은 기온특성으로 인해 진드기 번식이 어려웠다. 반면 빈번히 발생하는 지형성 강수와 안개는 우마들의 이동을 저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했다.

한라산 북쪽은 바람이 차고 모질어 초목들이 쉽게 말라 버리나, 한라산 남쪽은 겨울에도 눈과 서리가 내리지 않고, 나뭇잎들이 떨어지지 않아 말들이 살찌는⁸⁾ 곳으로 알려졌다. 일기는 따뜻하나 흐린 날이 많고 맑은 날이 적고, 봄·여름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가을과 겨울에는 맑은 날이 많으며, 초목과 곤충은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았다.⁹⁾ 이러한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 힘입어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목축의 최적지로 부상할 수 있었다.

2. 목축지 인문환경 자원

1) 목장사 자원

7) 한라산의 상산방목에 대해서는 필자의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탐라문화』 제 4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이 참조된다.

8) 『성종실록』 권283, 성종24년(1493) 10월4일(乙丑). “臣嘗奉使濟州, 觀山北風氣寒勁, 草木易枯; 山南冬無雪霜, 木葉不彫, 馬畜甚肥, 水牛畏酷熱隆寒, 若以全羅道分養水牛, 移於濟州山南之地, 則可指日蕃滋矣.”

9) 李元鎮, 『耽羅志』 25.

제주도의 목축문화는 목장사의 산물이다. 제주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목장은 『元史』에 기록된 탐라목장(耽羅牧場)으로, 이것은 원나라가 점령영토에 설치한 14개 황가목장(皇家牧場) 중 하나였다. 1276년(충렬왕 2) 8월 25일, 원조는 목축전문가인 목호(하라치)들과 말 160필 그리고 소, 양, 낙타를 현재의 성산읍 수산리 수산평(首山坪)에 보내 목장을 운영했다. 원조는 1277년(충렬왕 3)을 전후해 설치한 동아막(수산평)과 서아막(고산평)을 근거지로 삼아 목장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했다.

한편, 명나라에 의해 원이 붕괴된 후, 원 출신 목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말들의 일부를 명나라로 반출하는 문제로 고려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1374년(공민왕 23)에도 목호의 난이 발생했다. 이에 고려정부는 최영장군에게 명하여 반란세력인 목호군을 토벌하도록 했다. 목호의 난이 진압된 결과, 100년 가까이 제주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원의 세력이 소멸되었다.

1408년(조선 태종 8) 제주도안무사 조원(趙原)의 건의로, 동도(東道)와 서도(西道)로 구분되어 운영된 목장의 관리책임자는 애마자장관(愛馬孳長官)과 제령(提領)에서 감목관(4명; 동도 2, 서도 2)과 진무(鎭撫, 8명; 동도4, 서도4)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동도와 서도의 목장관리를 위해 진무(후에 馬監)가 각각 4명씩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고려 말 탐라목장이 동부와 서부지역에 4개씩 모두 8개로 분화되어 입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⁰⁾

조선시대에도 말은 전마 또는 명나라와의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물품으로 인식되면서 조정에서는 물과 목초가 있는 장소에 목장을 신설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새롭게 목장을 증개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1429년(세종 11) 제주도 출신 고득중(高得宗)이 한라산 산록부에 돌담을 쌓아 목장을 설치하자고 건의함에 따라 마침내 ‘제주한라산목장’이 출발을 알렸다. 그리하여 1430년경부터 목장경계용 돌담(жат성)을 축조하고 국마장 예정지 내에 있었던 344戶를 목장에정지 밖으로 옮기는 국영목장 설치사업이 시작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목장운영이 부실해지면서 1704년(숙종 28) 제주목사 이형상은 국영목장에 대한 재편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형상의 『탐라장계초』를 보면, 각각의 소(所;牧區)에 대한 관리를 9진(助防將)에 소속시키고, 다시 소를 대소(大所), 제소(第所), 소가 없는 무소(無所)로 구분했다.¹¹⁾ 또한 황자장(黃字場; 어승마 사육장), 양달장(楊達場; 흥구마, 노태마, 잡색마 사육장), 우자장(宇字場)을 별도로 운영했다. 양달장은 서귀진 제1소에 소속시켜 관리하도록 했다. 소를 방목하는 우목장인 황태장, 모동장, 천미장 그리고 우도장(牛島場; 1697년 설치, 馬牧場)과 가파도별둔장(加派島別屯場; 1751년 설치, 黑牛場)이 설치되었다. 우도장(牛島場)은 별방진과 수산진에서 교대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형상의 뒤를 이어 송정규 목사는 1704년(숙종 30) 15소 63자장을 십소장(十所場)으로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했다.¹²⁾ 산간지대에 분산되었던

10) 남도영, 2003,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168-169쪽.
 11) 그리하여 제주목에 대소 4개, 제소 6개, 별목장 1개를 설치하고, 정의현에 제소 4개, 대정현에 무소 2개 등 총 15소를 설치한 다음, 소규모 63자목장을 각각의 소에 부속시켰다.
 12) 李源祚(1842), 『耽羅誌草本』外, 탐라문화총서(4) 영인본(1989),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120쪽. “肅廟甲

산장들도 1658년(효종 9) 제주목사 이희의 건의에 따라 산마장(山馬場)으로 통합된 다음, 속종년간에 산마장은 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재편되었으며, 녹산장 내에 갑마장(甲馬場)이 설치되기도 했다.

1800년대 중반에 우도장과 가파도 별둔장이 폐장되기 시작했다. 십소장도 폐장되면서 목장토 개간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오개혁(1894년)으로 사실상 공마제도가 폐지되면서 450여 년 동안 유지되던 조선시대 제주지역 국영목장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¹³⁾ <그림 1>은 조선후기 제주지역 목장 분포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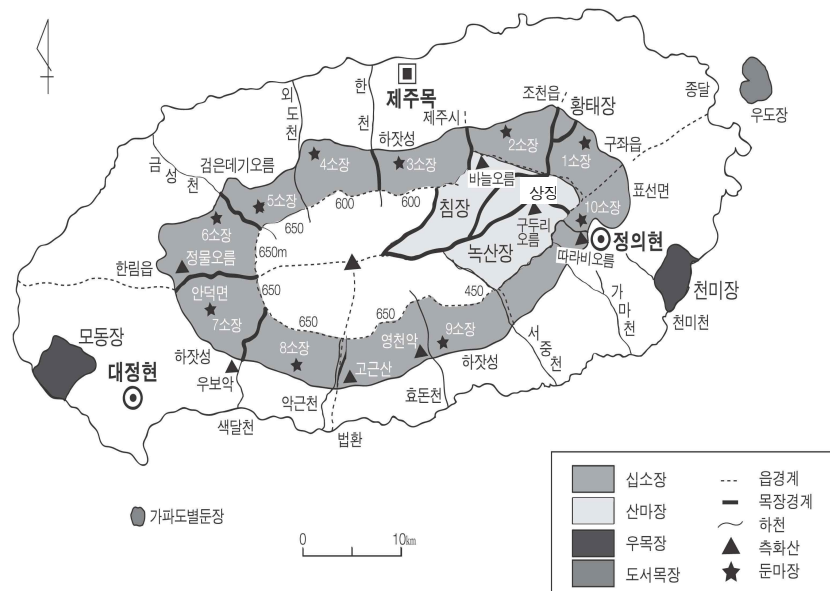


그림 1. 조선후기 제주도 목장분포도

(자료: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이상과 같은 제주지역 국마장들은 병조→사복시→전라도관찰사→제주목사→감목관(제주관관, 대정현감, 정의현감)→마감[우감]→군두→군부→목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중 제주목사[정3품]는 제주삼읍의 목자적, 우마적, 낙자인 관리와 함께 마필의 교역허가문권 발행 및 출륙허가를 담당하였다. 제주관관[종5품]·정의현감[종6

申 牧使宋廷奎 啓聞築場 舍劣 聚合小爲大定爲十所”.

13) 조선시대 국마장은 1930년대를 전후해 일제 식민지 당국에 의해 110여개의 마을공동목장으로 재편되었다. 이 목장은 1930년대를 전후해 조직된 마을공동목장조합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공동목장용지는 차수지(면유지, 도유지, 국유지), 매입지, 기부지(리유지)로 구성되었다. 기부지는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토지를 마을공동목장조합을 무상으로 넘긴 토지이며, 매입지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에 해당된다. 일제는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축우를 끌어갔으며, 표선면 가시리 공동목장에서 공출된 축우가 한림읍 한림리로 이동되어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애월읍 상가마을에서는 공동목장 방목기에는 목감을 고용해 가축을 관리하게 했으며, 목감료는 가축 두당 보리 또는 기타 잡곡으로 지급했다. 2013년 현재 60여개의 공동목장만이 마을단위 축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제시기 공동목장과 목장조합의 형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연구』(제주대 박사논문, 2011)에 소상히 제시되어 있다.

품]·대정현감[종6품]은 감목관을 겸임했다. 감목관 밑에는 각 목장[所場·別牧場·山馬場]에 모두 적용]의 1군마다 마감 1명(또는 2명)과 군두 1명·군부 2명·목자 4명을 배치했으며, 1군은 대체로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로 정했다. 마감(馬監)은 소장 내 자목장(字牧場; 친자문 글자로 목장이름 명명)의 군두·군부·목자를 감독하고, 마필의 생산·관리를 담당하였다. 마감은 각 소장 별로 대체로 1명 또는 2명씩 배치되었으며, 군두 중 우수한 자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군두는 군[자목장]의 책임자로, 각 자목장에서 군부 2명, 목자 4명과 함께 매년 암말 100필과 숫말 15필을 가지고 해마다 85필 이상을 번식시켜야 했다. 군부는 1인당 50필을 목양하며, 목자 2명을 관리하였다. 목자는 군에서 우마생산을 직접 담당했으며, 관노(官奴)·촌민(村民)·사사노(寺社奴; 사찰에 소속된 노비) 등으로 충원되었다. 목자들은 거주이전과 전직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의 역은 6고역(六苦役)¹⁴⁾의 하나로 자손 대대로 세습되었으며, 16세부터 60세까지 국영목장의 우마생산과 관리에 종사했다. 이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쌀·포목으로 포상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동색마(同色馬) 부담¹⁵⁾ 등 수많은 고역이 가해졌다. 목자들은 마감·군두와 함께 목장 내 또는 목장 인근에 형성된 촌락에 거주했다.¹⁶⁾

산마장은 대체로 6년마다 김만일 후손 가문에서 선출된 산마감목관에 의해 운영되었다. 3년마다 말 200필을 공마했으며, 산마감목관 밑에는 마감과 군두·목자를 배치하였는데 1792년(정조 16) 경에는 군두·목자를 합쳐 160명이 산마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제주목장에서 생산된 말들은 매년 조천포에 집결하여 공마선을 이용해 공마 형태로 조정에 바쳐졌다. 공마는 매년 국가에 바치는 연례공마(年例貢馬)로, 세동마(歲貢馬), 삼명목(正朝, 冬至, 誕日) 진상마(進上馬)·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그리고 3년마다(자·묘·오·유가 들어가는 해마다) 보내는 식년공마에는 차비마·어승마와 수시로 보내는 흉구마(凶谷馬), 노태마(駑駘馬) 등으로 구분된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공마에 대한 기사를 간추린 것이다.

가. 제주에 명하여 세공마 1백 필과 소 1백두를 바치게 하였다.¹⁷⁾

나. 전라도관찰사가 제주에 둔전(屯田)을 두도록 하였다. 진상마·공마·공물을 보내는데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과 바람을 기다리는 양식이 등 일 년에 소비되는 것이 약 1천여 석이므로, 전례에 따라 둔전을 설치하소서.”¹⁸⁾

14) 6고역에는 대체로 잡녀(미역채취), 포작(전복채취), 목자(우마관리), 과원직(꿀채배), 선격(진상품 운반), 답한(관청 땅 경작) 역이 해당된다.

15) 동색마란 목자가 관리하던 말이 죽게 될 경우, 마피를 벗겨 관청으로 가져가 마적에 기록된 말의 모색과 동일해야 변상을 면해주던 제도로, 관에서는 여러 이유를 붙여 해당 목자에게 변상을 시켜 목장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16) 大靜縣 지역의 호적중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東城里(안성리), 自丹里(덕수리), 今勿路里(사계리), 中文里(중문리)에 馬監, 群頭, 牧子가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김동진, 1991, 「19세기 濟州 지역의 身分構造와 職役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濟州社會研究』, 一志社, 14-16쪽).

17) 『태조실록』 권13, 태조7년(1398) 3월17일(갑자). “命濟州歲貢馬一百匹. 牛一百頭.”

다. 제주에서 공마 107필을 들였다.¹⁹⁾

<표 1>은 1703년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에 나타난 공마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는 공마의 종류와 용도, 공마수가 제시되어 있다. 공마는 병조에서 우마적에 기초해 징발대상의 말을 선정하여 사복시에 하달하면, 전라도 관찰사를 거쳐 제주목사에게 전달되었다. 제주목사는 이를 삼읍의 감목관에게 하달하고, 삼읍 감목관은 각 목장별 말의 징발을 위해 결책군(結柵軍)과 구마군(驅馬軍)을 대동하여 공마작업을 진행했다.

<표 1> 조선후기 제주지역 공마사례

구분	공마시기	진상용도	공마 수
御乘馬	3년마다	임금이 탈 말	20
差備馬	3년마다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하여 준비하는 말	8
年例馬	매년	정기적으로 貢納하는 말	80
誕生日馬	매년	임금의 生辰을 축하하여 바치는 말	20
冬至馬	매년	동짓달에 중국으로 使臣을 보내면서 함께 바치는 말	20
正朝馬	매년	정월 초하룻날을 맞이하여 바치는 말	20
歲貢馬	매년	연말에 각 牧場에서 바치는 말	200
凶咎馬	수시로	凶變이 있을 때에 使役하는 말	32
駕駘馬	수시로	짐 싣는 말	33

자료: 李衡祥, 1702, 『耽羅巡歷圖』<貢馬封進>, 濟州市, 1999, 『耽羅巡歷圖』, 24쪽을 재구성함.
공마 수 단위는匹임.

공마수송은 남풍이 발생하는 시기인 하절기에 이루어졌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수송하는 데는 약 2개월이 걸리며 바다에서의 조난과 수송비용이 엄청났다. 공마선은 평균 10척이 왕래했다. 배마다 영선천호(領船千戶) 1인, 압령천호(押領千戶) 1인, 선장(船長) 1인, 사관(射官) 4인이 탔다. 격군(格軍)은 대선이면 43인, 중선이면 37인, 소선이면 34인이 분승하여 노 젓는 일을 맡았다.

공마를 위해서는 점마가 필요했다. 점마(點馬)는 십소장과 산마장에서 결책군과 구마군을 동원하여 말들을 목장 내외에 설치된 둥그런 원장(圓場)과 폭이 좁은 사장(蛇場)으로 몰아넣은 뒤, 말들의 상태와 수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는 『탐라순력도』(1703)의 <別防試射>에 나타난 별방진성 내에서의 점마장면으로, 이곳에서 점마를 위해 들어온 말들은 별천자둔(別天字屯) 소속이었다.

점마는 절제사 또는 점마별감(點馬別監) 그리고 목자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루어

18) 『태종실록』 권35, 태종18년(1418) 4월2일(임오). “全羅道都觀察使請置濟州屯田… 每年諸處祭享, 三度進上馬貢, 馬貢物過海糧, 待風糧, 如此一年所費, 約一千餘石, 無時助戰軍糧, 補乏實難, 請依前例置屯田.”

19) 『고종실록』 권18, 고종18년(1881) 윤 7월 11일(신축). “司僕寺以“濟州入貢馬一百七匹.”

졌다. 절제사는(정3품, 무관직) 대체로 십소장보다는 산마장 국마를 대상으로 점마를 했다. 반면, 중앙에서 과견되어 사둔장의 실태를 알지 못했던 점마별감은 사마와 국



그림 2. 『탐라순력도』 <別防試射>의 점마장면
(1702.11.1)

마를 모두 점마하였기 때문에 농번기에 있었던 농민들에게 민폐가 되기도 했다. 사둔마에 대한 점마시기가 농사철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각처의 사둔(私屯)에서 방목 중인 말들을 일정장소로 몰아 점마 순서를 기다려야 한 결과 “점마한 다음 해에는 흉년이 든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²⁰⁾ 점마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점마군(點馬軍)이 편성되기도 하였으나, 점마에 필요한 노동력을 모두 주민들의 요역(徭役)²¹⁾

으로 충당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점마관련 기사이다.

가. 점마하러 들어가는 때는 날씨가 춥고 바람이 싸늘한 9, 10월 사이인데, 환장(環場)·사장(蛇場)의 좁은 곳에 몰아넣어서 골라잡게 할 때에 암수가 샘하여 스스로 물고 차기를 좋아하므로 낙태하는 것이 반(半)이 넘거니와, 이로 인하여 국마가 감소됩니다.²²⁾

나. 제주에 점마사(點馬使)를 올 봄에 보낼 것을 전교하셨다. (중략) 봄에는 바야흐로 새끼를 가질 때이니, 만약 이런 때 말을 몬다면 반드시 과반은 상할 것입니다. 제주의 점마는 으레 4~5년에 한 차례씩 하였다. 점마사를 뽑아 출발시켜도 바람 불기를 기다려서 도착하려면 4~5월 사이에나 비로소 말을 몰게 됩니다. 이같이 하면 새끼 뱀 말이 다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발의 곡식이 무성해질 때라서 밟아 손상시킬 것이니, 민간의 폐단이 클 것입니다.²³⁾

이러한 점마모습은 『탐라순력도』의 <山場駒馬>, <涯月操點>, <明月操點>, <大靜操點>를 통해 확인된다. 이 중 <산장구마>에 나오는 점마장면을 보면, 1702년

20) 『中宗實錄』 권55, 중종20년(1525) 9월 28일(갑신) : “點馬別監, 則私屯及山林散放之馬, 未知虛實, 皆驅聚待候. 正當農月, 各處私屯, 驅聚候望, 動經旬月, 艱得一二匹, 而僅備進貢, 徒爲廢農, 民甚苦之. 自古稱: ‘點馬、明年失稔’ 臣之來蒞.”

21) 徭役이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수취제도를 의미하며, 토목공사에 백성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점마군에 들어가 環場木柵, 場馬捕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2) 『성종실록』 권281, 성종24년(1493) 8월 5일 : “今次點馬入去之時, 正當天寒風冷, 九、十月之間, 環場蛇場狹窄之處, 盡令驅入揀捉時, 牝牡猜妬, 喜自踴躍, 蹴踏落胎者過半矣. 因此國馬減損, 臣不敢不爲之慮也.”

23) 『중종실록』 권60, 중종23년(1528) 2월 15일. “司僕寺提調、兵曹同議來啓曰 濟州點馬, 今春入送事, 傳教. (중략) 況春月則時方孳孕, 若於此時驅之則必過半致傷矣. (중략) 濟州點馬則例以四五年一次爲之. 今若發遣點馬, 而候風入歸則當於四五月間, 始爲驅馬. 如此則非徒孳孕之馬致傷也, 田穀方茂之時, 必爲踏損, 民間之弊, 亦甚不貲. 且聞, 濟州今年至爲凶荒, 點馬入送, 亦未知何如.”

(숙종 28) 10월 15일 녹산장(鹿山場) 내에서 제주관관, 정의현감, 산장감목관(김진혁)이 결책군 2,062명, 구마군 3,720명, 목자와 보인 214명 등 총 6,536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점마를 실시했다.

잣성은 조선시대 제주도 목마장(관설목장)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역사유적으로, 십소장(十所場)의 상·중·하 경계선에 해당하는 돌담이다. 『제주계록』에는 ‘장원(牆垣)’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발 150~250m 일대의 하잣성, 해발 450~600m 일대의 상잣성 그리고 해발 350~400m 일대의 중잣성으로 구분된다. 1430년대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하잣성은 우마들이 농경지에 들어가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잣성은 우마들이 한라산 삼림지역으로 들어가 고실(故失) 또는 동사(凍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잣성은 상잣성과 하잣성의 중간적 위치에 축조된 것으로, 『탐라순력도』(1703)의 <교래대렵>에 대록산과 소록산 사이에 중잣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중잣성은 1702년 이후에 등장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 잣성의 출현은 방목지를 이등분하여 목장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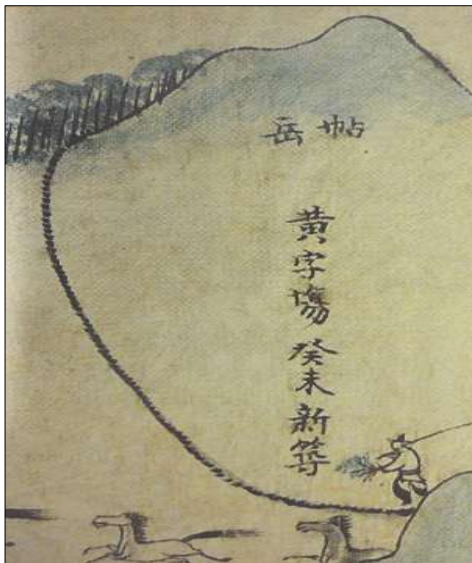


그림 63. 황자장 잣성

『탐라순력도』(1703)의 <別防操點>에는 축조 연대가 확실한 잣성이 등장한다(그림 3). 이 돌담은 송당리 체오름과 덕천리 둔지봉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곳에 황자장(黃字場)을 설치하며 축조된 것으로 계미년(癸未年)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미년은 숙종 29년인 1703년이거나 인조 21년인 1643년, 아니면 그 이전인 선조 16년인 1583년에 해당된다. 『탐라순력도』가 1703년에 완성된 지도임을 감안한다면 이 잣성은 1643년에 신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둔마장(屯馬場)은 각각의 소장에 만들어진 목축의 중심지였다. 둔마장이라는 용어는 1770년대에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나타나고 있다. 둔마장에는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피우가(避雨家), 말들을 점마하기 위한 원장

과 사장 그리고 직사(直舍)가 있었다.

마을과 가장 가까이에 존재했던 유적으로 '직사터'와 '점마청터'가 있다. 직사터는 직사(直舍)가 있었던 자리이자, 목장을 운영하던 관리들이 일시 거주하는 집으로, 남원읍 하례 2리²⁴⁾, 구좌읍 송당리에서 확인되고 있다. 1소장 범위에 속하는 구좌읍 송당리의 직사동네는 상동마을에 해당된다.

‘점마청터’라는 지명은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확인된다.²⁵⁾ 점마란 중앙에서 내려온 점마별감이 목마장에 방목중인 말들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는 행위로, 점마청이란

24) 南元邑 下禮二里, 1994, 『鶴林誌』, 80쪽.

25) 하원마을회, 1999, 『河源郷土誌』, 212쪽.

점마별감이 점마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일종의 사무소라고 할 수 있다.

3. 목축 문화자원

목축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은 <표 2>와 같다. 이 절에서는 둔방목과 우마를 이용한 낙인과 거세풍습, 밭별리기, 방애와 바령밭 만들기, 번쇄와 멤쇄 기르기, 제주마와 흑우 기르기 전통 등에 대해 약술한다.

<표 2> 제주도 목축문화 구성요소

분류	목축문화 구성요소
목장	십소장, 산마장, 모동장, 천미장, 황태장, 우도장, 가과도별둔장, 비양도 녹장, 한동리 좌가장, 가시리 갑마장
가축	제주마, 흑우
생활체험	테우리, 말뚝이용, "출"베기, "눌" 놀기
목축방법	방목, 이목, 상산올리기, 번치기, 꽃치기, 방애(들불농기)
목축의례	테우리 코스(백중제), 감목관 곳
복장	테우리 의복
도구	낙인, 글갱이, 멩애, 잔대, 테우리 차반지, 밥 둥고랑
물	못(습지), 용천수
신화와 무속	삼성신화, 당
민요	밭별리는 노래, 말 모는 소리
농법	진압농법, 바령밭
유적(물)	잣성, 장통, 밀통, 원장, 사장, 공마감 오염비석, 하마비
지명	물 질, 물소, 장통밭, 밀통동, 점마청터, 직세터, 도(梁)
고문헌	산장절목, 탐라영사례, 탐라순력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지도, 탐라지, 제주읍지, 정의읍지, 대정읍지, 제주계록

(자료 : 강만익, 2006, 「제주도의 목축문화와 그 유적」,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113쪽)

1) 둔방목과 밭별리기

둔방목은 우마들이 일정한 목축 장소에서 무리를 지어 목초를 먹는 목축방식이다. 밭 밟기 전통은 우마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목축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주지역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토양환경으로 씨앗을 파종해도 바람에 날려가 버리기 때문에 우마들을 농경지로 들여보내 토양을 밟아주어야 했다. 이것은 진압농(鎭壓農)에 해당하며, 농경과 목축을 병행했던 전통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은 태종 11년(1411) 『태종실록』에서 등장하는 둔방목과 밭 밟기에 대한 기사이다.

가.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는 자들은 모두 둔(屯)을 지어 방목하며 매 둔마다 해마다 말 1필을 국가에 바친다.

나. 제주도 토성은 푸석하고 들떠서 곡식을 파종하려는 자는 말과 소를 모아 그 땅을 밟아 땅이 반드시 단단해진 뒤에 종자를 뿌리니, 공사의 말들이 이 때문에 피곤해진다. 공가(公家)에서 비록 금령이 있으나, 몰래 목자와 짜고서 말을 병들게 합니 다.²⁶⁾

2) 낙인과 거세

낙인은 자형(字型)이나 도형(圖形)이 새겨진 쇠붙이를 달구어 가축에 찍는 일종의 쇠도장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국영목장에서는 천자문 글자인 천(天), 지(地), 현(玄), 황(黃) 등을 낙인으로 이용하였다. 개인이 사육하는 사마의 낙인에는 천자문 글자를 사용할 수 없었다. 낙인은 말을 잃어버리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목장별, 마을별, 개인별 소유관계를 밝혀주기 위해 행해진 것이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낙인 관련 기사이다.

가. 공사간 목장들에 품질 좋은 숫말은 ‘부(父)’라는 낙인을 찍어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한다.²⁷⁾

나. 구례에는 제주의 흥리인(興利人 : 무역상인)이 마필을 교역할 경우에는 목관에서 반드시 문안을 상고하여 ‘시(市)’ 자의 도장을 낙인하여 육지로 내보내게 하였다. 근래에는 도장이 없는 말은 잡아서 고발하라는 법령이 없어 인표(印標)가 없이도 쉽게 육지에 나갈 수 있어 도적이 날로 불어 뒷날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²⁸⁾

거세는 일명 ‘불알까기’를 말한다. 태종 7년(1407) 기록에 의하면, 말을 거세할 경우 성질이 온순해져 사양관리가 쉽고, 교미능력이 상실되어 암수의 혼용사역(混用使役)이 가능하나, 말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려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거세관련 『태종실록』 기사이다.

무릇 양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개 말을 거세하여 종자를 없애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임의로 거세하지 못하게 했다. 부득이 하게 병이 있어 거세해야 할 경우, 서울에서는 병조에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수령에게 알려 그 허위와 사실을 상고하여 낙인한 후에 거세하도록 한다.²⁹⁾

26) 『태종실록』 권22, 태종11년(1411) 7월 27일(병술). “濟州牧使金廷雋, 上言 州有東西二道, 凡畜馬者皆作屯, 每屯歲獻馬一匹, 例也. 今觀土性虛浮, 凡播穀者必聚馬牛, 以踏其地, 地必堅硬, 然後播種, 公私牛馬, 因此困疲. 公家雖有禁令, 潛與牧通同, 以致馬病.”

27) 『세종실록』 권61, 세종15년(1433) 9월 9일(무자). “公私屯品好牡馬, 以父字烙印, 不許出陸, 已曾立法. 然私屯馬, 則其本主不顧後慮, 竝皆放賣, 其出陸時, 如有父字烙印者, 還給本主.”

28) 『성종실록』 권14, 성종3년(1472) 1월 30일(정묘). “舊例, 濟州興利人, 交易馬匹, 牧官必考文案, 烙市字印, 許令出陸. 近來禁制陵夷, 又無無印馬捕告之令. 故雖無印標, 易以出陸, 因此盜賊日滋, 後弊難防.”

29) 『태종실록』 권13, 태종7년(1407) 3월 29일(계미). “馬政, 軍國所重. (중략) 近來凡有良馬者, 率皆作騙, 以絕其種, 乞自今, 布告中外, 使不得擅騙. 其有病必須騙者, 京中則告兵曹, 外方則告守令, 考其虛實烙印, 然後方許作騙. 從之.”

3) 방애와 바령밭 만들기

목야지에서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불을 놓아 잡초나 초지를 태우는 것을 ‘방애(放火)’라고 불렀다. 이것은 방목지를 정비하는 방법인 동시에 해마다 연초에 이루어졌던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목장지대의 무덤(산소)에 산담을 두른 것은 우마 출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방애’로 인해 분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방애’는 이른 봄 들판에 쌓였던 눈이 녹아 마른 풀이 드러나는 음력 2월이나 3월 초순에 이루어졌다. 새 풀이 돋아나면 우마를 방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했다. ‘방애’를 하면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풀이 잘 돋아난다. 이러한 ‘방애’는 우마를 방목하기 전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중요한 연중행사의 하나였다.

제주도 토양은 많은 비로 인해 토양 속의 유기물질이 쉽게 유실되어 비옥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가 없었던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도민들은 농사를 위해 거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제주도민들은 뚝통시, 쇠막, 정지(‘불치’가 거름으로 이용) 그리고 밭에서도 거름을 확보했다. 우마들을 일정한 밭으로 몰아 넣은 다음 배설물을 모으는 밭을 ‘바령밭’이라 했다. 이건(李健)은 『제주풍토기』(1628~1634)에서 바령밭을 ‘분전(糞田)’이라고 했다.³⁰⁾

4) 밭갈쇠 · 번쇄 · 멤쇄

전작(田作) 지대인 제주도에서는 밭을 가는 ‘밭갈쇠’(耕牛)가 중요했다. 집집마다 ‘쇄막’에는 밭갈쇠 1~2마리 정도는 있었다. 밭갈이에 말보다 소를 이용했다. 말보다는 소가 인내심이 강하고 힘도 세기 때문이다. 습윤한 기후환경으로 인해 잡초가 많아 밭갈이에 소를 이용한 것이다. 밭갈쇠는 힘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길들여야 했다. 그래서 애월읍 상가마을에서는 약 30kg 안팎의 돌맹이에 구멍을 뚫어 만든 ‘곰돌’을 멍에에 매달아 끌게 하면서 훈련시켰다.

‘멤쇄’는 다른 사람의 소를 대신 길러 주고 보상을 받는 소이다. 멤쇄 대상은 대체로 암소였다. 멤쇄는 소가 없는 사람이 소를 마련하거나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이용되었다.³¹⁾ ‘번쇄’는 농한기에 이웃끼리 당번을 정해 각 호의 소를 몰아다가 목장에서 먹이는 소를 말한다. 번쇄와 멤쇄는 최근 제주도의 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4. 목축 인적자원

1) 테우리(牧子)

목축 인적자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테우리와 ‘헌마공신’ 김만일이다. 테우리는 목

30) 李 健, 『濟州風土記』, 金泰能(譯), 1976,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쪽.

31) 고성리 향토지 편찬위원회, 1993, 『고성리지』, 149쪽.

축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쉐테우리’, ‘몰테우리’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에는 목자(牧子)라고 했다. 조선시대 목자들은 동색마(同色馬) 폐단³²⁾ 등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다. 목자 중 실명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인물은 한경면 출신인 고윤문으로,³³⁾ 부모에 대한 효행이 알려져 복호(復戶)³⁴⁾된 목자였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목자관련 기사들의 일부이다.

가. 섬에서 목축을 하는 목자들에게 섬 안에 초옥(草屋) 서너 채를 짓게 하여 말들에게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했다. 매년 야초를 베어 쌓아놓아 풍설과 기한(飢寒)에 대비하도록 했다.³⁵⁾

나. 목자들은 관마를 5일마다 교체하여 번을 들었으며, 이때 인계받은 말들의 숫자를 세어 다음에 번을 서는 목자에게 넘겨주었다.³⁶⁾

다. 제주목자 고윤문(高允文)은 효행으로 인해 복호(復戶)되었다.³⁷⁾

「濟州牧場救弊完文」(1860)에는 천하고 괴로운 잡역으로는 목자같이 심한 것은 없다고 기록했다.³⁸⁾ 1800년대 초 대정현감 김인택(金仁澤)이 작성한 『丁丑六月日 大靜縣衙中日記』(1817~1818)에 따르면, 공마를 잃어버리거나, 목장 말을 죽게할 경우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군역을 피하려 하거나 국마를 사전(私田)으로 이동시켜 답전(踏田 : 밭탈림)하게 해도 처벌 대상이었다. 심지어 모동장의 군두가 이곳의 소들이 곡식을 먹어 버리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 때문에 목자로 강등되기도 했다.³⁹⁾

2) 김만일(金萬鎰)

『濟州邑誌』와 『承政院日記』에⁴⁰⁾ ‘헌마공신(獻馬功臣)’으로 기록된 김만일(1550~1632)은 사후 산마장(山馬場)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한 인물로, 선조와 광해군 때 헌마한

32) 박찬식, 앞의 논문, 1993, 461-471쪽.

33) 효자 제주목자 고윤문의 비석은 현재 한경면 두모리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고윤문에 대해서는 『한경면역사문화지』(2008, 161-162)가 참조된다.

34) 복호(復戶)는 조선 시대에 충신과 효자,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보상으로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35) 『태종실록』 권13, 태종7년(1407) 3월 29일(계미). “司僕寺上馬政事目. 啓曰 馬政, 軍國所重. 各道孳息馬匹, 因暑雨風雪, 多至疲弊. 乞於一島內, 量造草屋三四處, 使馬群得避寒暑, 且使牧子, 每年季秋, 刈積郊草, 以爲風雪飢寒之備. 從之.”

36) 『세종실록』 권64, 세종16년(1434) 5월 1일(정축). “公馬則職員等, 各其逢受馬匹, 每五日相遞立番時計數交付, 故於馬草不實平地, 常日驅聚, 尤加勞困瘦弱, 生産不實.”

37) 『순조실록』 권19, 순조16년(1814) 6월 8일(병진). “禮曹因諸道儒生上言, (중략) 濟州牧子高允文孝行, 并復戶從之..”

38)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007, 「濟州牧場救弊完文」, 『도영절차·영해창수록』(제주목사료집 제2책), 59쪽.

39) 오성찬 외, 1988, 『귀양객들이 낀이 스민 大靜고을』(제주의 마을시리즈 ⑧), 도서출판 반석, 141-183쪽.

40) 『승정원일기』, 고종 9년(1872) 7월 1일(계미). “濟州監牧官, 則乃是 獻馬功臣 金萬鎰后裔中, 本牧自辟矣”

업적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였기 때문에 16세기 말 제주도에서는 유명한 사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시리 대록산과 따라비오름, 수망리 영아리오름과 한남리 민약 일대에서 개인목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헌마에 대한 보상으로 오위도총부 부총관직(중2품)을 제수받기도 했다.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의 귀리에는 김만일 묘가 있으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5. 목축의례 자원

조선시대 목축의례는 지방관아와 민간에서 행해졌다. 지방관아가 주체가 되어 행해졌던 의례에는 마조제(馬祖祭), 공마해신제(貢馬海神祭) 등이 있었다. 마조제는 말의 조상인 방성에게 지내는 제사로 한양에 마조단을 두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년에 네 차례 말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내던 제사이다. 다른 지방과는 달리 말이 번성했던 제주도에도 1852년 현재의 제주시 ‘광양’(KAL호텔 입구로 추정)에 설치되어 마조제가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마해신제는 진상하는 말을 실은 배가 출항에 앞서 수령이 순항을 기원하며 해신에게 지내던 제사였다.

민간의 목축의례로는 낙인코시, 귀표코시, 당의례, 백중의례가 있다. 이중 백중의례는 음력 7월 15일(백중날) 밤에 목축지에서 고사를 지낸다. 이를 테우리 코사, 모쉬맹질, 테우리 맹질 등으로 부르며, 우마들이 탈 없이 잘 자라고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하는 의례였다.⁴¹⁾ 낙인코시는 목축신에게 낙인으로 인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비는 의례로, 제물은 돌레떡, 조오메기떡, 술, 제숙(구운 생선)을 준비했다. 귀표코시는 귀를 자를 때 사고가 없기를 기원하는 의례로, 표선면 가시리에서 행해진 귀표코시는 낙인, 밧줄, 술, 떡, 제숙, 불에 구운 잘라낸 귀를 제상에 올린 뒤 제를 지냈다. 표선면 성읍2리의 경우처럼 마을에 있는 당신(堂神)에게 잃어버린 우마를 찾게 도와달라고 기원하는 당 의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미리 당신을 찾아 기원을 하고 방목지로 가면 잃어버린 우마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한다.⁴²⁾

6. 제주마와 흑우자원

조선시대 목축문화의 상징적인 존재는 제주마와 흑우였다. 제주마는 역사기록에 탐라마(耽羅馬), 제마(濟馬), 토마(土馬), 조랑말 등으로 등장한다. 이중 ‘조랑말(pony)’은 상하 진동 없이 달리는 ‘조로모로’(몽골어) 주법을 행하는 말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주마는 모색에 따라 유마(갈색), 가라(검은색), 적다(밤색), 총마(회색), 율라(얼룩이), 고라(암황갈색), 부루(점박이), 공골마(담황백색), 설아마(백색)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라, 부루, 적다’라는 용어는 몽골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위별 특징에 따라 간저니(이마에서 코까지 흰줄이 있는 말), 골리매(눈 주변이 안경 낀 것

41) 제주도문화예술과, 2002, 『제주도 제주마』(제주마문화연구보고서1), 326쪽.

42) 좌동렬, 2010, 앞의 글, 6-40쪽.

처럼 둥근 테가 있는 말), 면백이(흰색 얼굴인 말), 면조기(발목에 털이 없는 말), 목하니(목에 흰 점이 있는 말), 사통이(눈 한쪽이 사팔뜨기인 말), 이용이(꼬리가 비뚤어져 향문이 보이는 말), 접수기(앞은 내려앉고 뒷등이 올라간 말), 족발이(발 한쪽이 약간 짧아 균형이 맞지 않은 걸음을 걷는 말), 피마리(코에 흰 점이 있는 말), 활동이(등이 폭 꺼진 말) 등으로 부른다.⁴³⁾

조선시대 제주흑우(‘검은쇠’)는 조정에 진상되어 국가제사에 이용되었다. 이것은 “제사에 쓸 검은 소가 부족하자 민간의 것을 골라다가 관청에서 기르고 있다”는 『중종실록』(1521)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⁴⁴⁾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이나 『탐라순력도』 등에서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주 흑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130여 마리가 사육중이며, 2013년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III. 목축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방향

1. 목축 문화콘텐츠 구축자료 현황

이상과 같이 제시된 목축문화 콘텐츠 원천자료를 어떻게 콘텐츠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자의 전공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콘텐츠 구축방향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잡기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목축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대로, 문화콘텐츠는 출판, 만화, 방송, 게임, 캐릭터 등 문화와 관련된 각종 매체들을 지칭한다.⁴⁵⁾ 한편으로는 문화원형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창조적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⁴⁶⁾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텍스트 콘텐츠(출판, 신문, 잡지), 비텍스트 콘텐츠(공예품, 미술품, 공연), 시청각 콘텐츠(방송, 영상, 광고, 영화, 비디오, 음반), 디지털 콘텐츠(애니메이션, 게임, 모바일 등)로 구분할 수 있다.⁴⁷⁾

이 절에서는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목축 문화콘텐츠 구축현황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3). 이 자료들은 비록 특정한 구심점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축된 것이나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축 문화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43) 남도영, 2003, 『제주목장사』(제3판), 한국마사회박물관, 91-97쪽.

44) 『중종실록』 권41, 중종16년(1521) 3월 10일(壬戌) : “祭用黑牛, 擇取民間, 久養于官, 或不中用, 虛費廩料”.

45) 정창권, 2010,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24쪽.

46) 김만석, 2010,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북코리아, 45쪽.

47) 허 권,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사논문, 4쪽.

<표 3> 제주도 목축 문화콘텐츠 구축자료

분류	목축 문화콘텐츠
텍스트 콘텐츠(출판, 신문, 잡지)	『고태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마지막 말테우리』(박재형, 2003), 『마지막 테우리』(현기영, 2006) 『한라산』(오성찬, 1990), 『헌마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권무일, 2012), 『사진으로 보는 제주목축문화』(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 시험장, 2011),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 시험장, 2007), 『제주도목장사』(남도영, 2003), 『제주조랑말』(강민수, 1999), 『濟州馬 이야기』(장덕지, 2007), 『제주축산사』(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7), 『제주동·서부지역의 공동목장사』(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2010·2011),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강만익, 2013) 등
시청각 콘텐츠(방송, 영상, 광고, 영화, 비디오, 음반)	제주대 문화콘텐츠사업단·JIBS 공동제작, <김만일과 산마장>, KBS 제작 <제주의 잣성>과 <흑우>, KCTV 제작, <제주마문화의 산증인, 말테우리>,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제주MBC, <MBC마당놀이 몰·말·몰이야기>, KBS TV문학관 『한라산』(1984년 5월 12일 방영), 말 모는 소리(고태호) 등

<표 3>에 제시된 자료 중 출판물 콘텐츠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재형의 『고태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마지막 말테우리』(2003)에서는 ‘마지막 말테우리’ 고태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다큐동화로 청소년들의 목축문화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2006)는 축산업이 쇠퇴하면서 감귤농업에 노동력을 투입하는 마을주민들을 대신해 우마를 관리하던 테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성찬의 『한라산』(1990)은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이루어졌던 ‘상산방목’에 대해 적고 있다. 이 책은 1984년 5월 12일 KBS TV문학관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기도 했다. 권무일의 『헌마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2012)는 김만일과 국마목장, 테우리, 산마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의 『사진으로 보는 제주목축문화』(2011)는 고려시대 탐라목장부터 일제강점기와 현대의 목장에 걸친 제주목장의 변천사와 목축민속 장소에 대해 사진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목축 문화콘텐츠를 구축하는 시각적 자료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제주도·제주도문화예술재단의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2007)는 산마장을 개척했던 김만일과 그 가계 관련 역사유적과 유물을 제시해 김만일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남도영의 『제주도목장사』(2003)는 조선시대 제주도 국영목장의 운영실태, 공마와 수송문제, 우목장(牛牧場) 실태에 대해 정치사 및 제도사적 측면에서 여러 자료들을 제시했다.

강민수는 『제주 조랑말』(1999)에서 제주 조랑말의 특징과 조랑말의 성장과 사양관리, 걸음걸이에 이르기까지 조랑말의 생태를 소개했다. 장덕지는 『濟州馬 이야기』

(2007)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의 특징과 사육방법, 역사속의 제주마와 제주마와 관련된 목축민속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가 발간한 『제주축산사』(2007)는 가축사육 방법과 실태에 대해 소상히 적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가 발간한 『제주동·서부지역의 공동목장사』(2010·2011)는 동서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공동목장의 역사에 대해 자료발굴과 현장답사 결과를 중심으로 적고 있다. 강만익의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2013)는 일제 식민지 당국에 의해 193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마을공동목장조합의 형성배경과 운영 실태를 제시했다.

<표 3> 외에도 목축 문화콘텐츠 자료에는 문화재 자료, 인물자료, 무형유산, 유형유산, 기록문화유산 자료 등이 있다. 문화재 자료는 2건으로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1986년에 지정된 <제주의 제주마>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5호로 2009년에 지정된 <의귀리 김만일 묘역>이 있다.

인물자료로는 고득중과 김만일이 대표적이다. 고득중은 조선 세종 때 현재 서울시장 격인 한성부 판임 역임했으며,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국영목장을 설치하도록 건의한 인물이다. 무형유산으로는 백중제(테우리코사), 낙인코시, 귀표코시, 밧불리는 코시 등이 있다.⁴⁸⁾ 유형유산으로는 제주문화상징으로 지정된 잣성, 번쇄와 멍쇄, 검은쇄(黑牛) 등이 있다.

기록문화유산으로는 『탐라순력도』(1702)과 「목장신정절목」, 『조선왕조실록』 등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목장신정절목」은 정조 18년(1794)에 御使 沈樂洙가 산마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으로, 18세기 말 산마장의 실제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사료로, 201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목축문화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물은 『조선왕조실록』이다. 여기에는 국영목장설치 배경, 목장명칭, 목장운영상황, 공마실태, 목장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목자의 실태와 우마사육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효종 4년(1653)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이 『동국여지승람』과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참고하여 편찬한 『탐라지』에는 제주, 대정현, 정의현 지역의 목장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목축문화와 관련된 축제자원으로는 제주마축제와 제주들불축제가 있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이 “제주의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하는 제주마축제에서는 말 퍼레이드, 마상쇼, 말 모색이름 알아맞히기, 말 등 오르기 등 다양한 말 관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제주시가 해마다 이름 봄에 개최하는 제주들불축제는 본래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공동목장에 불을 놓았던 '방애'라는 제주의 옛 목축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한 축제라 할 수 있다.

48) 이에 대해서는 좌동렬의 연구인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제주대 석사논문, 2010)가 참조된다.

2. 목축 문화콘텐츠 구축방향 논의

이상과 같이 제시된 목축 문화콘텐츠 자원들과 기존의 콘텐츠 구축자료들을 이용해 어떻게 목축 문화콘텐츠로 구축 또는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① 목축 문화콘텐츠 개발을 담당할 책임 있는 핵심주체가 필요하다. 제주국립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발전연구원 또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박물관(가시리 리립 조랑말박물관 등)이나 언론매체들이 기존에 구축된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원천자료를 이용해 목축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했으면 한다.

② 특히 방송매체를 이용해 목축문화를 소재로 한 단편영화, 드라마 및 특집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한다. 2011년 10월 제주마축제에서 공연된 <제주 MBC 마당놀이 몰·말·몰이야기>는 완성도가 높은 대표적인 목축문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일단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경우 여러 지역에서 수차례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에 발생했던 목호의 난(1374)을 대상으로 고려 명장 최영이 이끄는 탐라목호토벌대와 몽골 목호군과의 전투장면을 영화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만일과 효자로 소문난 목자 고윤문 등을 주인공으로 한 방송콘텐츠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테우리 학교를 운영했으면 한다. 한림읍 귀덕리 한수풀 해녀학교에서 해녀를 양성하는 것처럼 이 학교를 통해 테우리를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테우리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강사로 투입해 참여자들에게 방목기술법, 낙인과 진드기 구제법, 귀표, 거세, 승마, 목축의례 등에 대해 교육시키며 목축문화의 전승과 함께 콘텐츠 개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박물관 프로그램의 하나로 <테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차선책일 수 있다. 이 학교는 조선후기 산마장 운영을 위한 객사가 위치했던 조천읍 교래리 지역이 적당할 수 있다.

④ 목축문화와 관련된 음식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백중제 목축의례에 이용되는 음식을 이용한 콘텐츠나 조선시대 ‘검은쇠’(흑우)가 조정에 진상되어 국가제사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좋은 콘텐츠 소재가 될 수 있다. 『중종실록』(1521)에 의하면, “제사에 쓸 검은 소가 부족하자 민간의 것을 골라다가 관청에서 기르고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말고기에 대한 기록으로 『태조실록』(1395)에는 제주지역의 말린 말고기 진상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해마다 12월에 암말을 잡아 육포(肉脯)로 만들어 진상하는 것이 제주의 풍습이었으나 도안무사 황군서(黃君瑞)가 임금에 고하여 이 풍습을 없애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태종실록』(1401)에도 말린 말고기 진상을 중지하라는 기록이 있어 말고기로 육포를 만드는 풍습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말고기를 육포로 만드는 풍습은 몽골과 관련 있어 보인다.

『탐라순력도』(1702)의 <산장구마>를 보면 현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객사가

표시되어 있다. 이곳의 객사는 산마장 운영과 관련된 시설로 보이며 이를 통해 교래마을은 조선후기 산마장의 중심취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교래리 마을에 말고기 전문식당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위 지도에 근거하여 교래리 특정장소에 객사를 복원하고 말고기 전문식당으로 특성화된 ‘교래리 목축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⑤ 전시콘텐츠로 목축박물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현재 표선면 가시리에는 리립 조랑말 박물관이 조랑말 체험공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제주전역에 흩어져 있는 목축도구들이나 유무형의 민속자료들이 소멸되고 있는 시점에서 목축도구들을 수집해 체계적으로 보관,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목축도구들은 목축문화를 재현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수집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⑥ 테우리(목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1702), 「濟州牧場救弊完文」(1860년), 『丁丑六月日 大靜縣衙中日記』(1800년대초)를 토대로 목자의 생활상, 6고역, 동색마, 십소장과 산마장, 공마, 구마, 점마 등을 키워드로 한 콘텐츠들은 실로 다양할 것이다. 효자로 칭송받아 『순조실록』에 등장한 6소장 목자 고윤문(高允文) 이야기나 1672년 3월 자신이 관리하던 말이 남의 보리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어버린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야 했던 목자 노(奴) 태호(太好) 이야기 등 목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은 실로 다채롭다.

⑦ 제주목장사에 등장하는 고려말 탐라목장과 몽골이야기는 색다른 흥미를 줄 수 있다. 1276년부터 1374년까지 몽골 목축인(하라치)들이 제주도에 정착해 살았던 이야기나 몽골식 목축이야기 그리고 몽골인과 제주인과의 교류관계, 탐라목장에서 생산된 말의 반출 이야기, 원나라가 멸망한 이후 제주에 정착하며 성씨를 받아 살았던 이야기, 목호의 난 이야기들은 제주도와 몽골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⑧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을 중심으로 공마과정과 공마실태, 공마선을 재현하는 콘텐츠 개발은 조선시대 공마선 운영과 공마의 종류, 공마선에 타는 뱃사람, 공마선이 출항하는 시기와 포구, 전라남도 해안에 도착한 뒤 한양까지의 운송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⑨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와 <별방시사> 등과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해 점마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했으면 한다. 점마는 공마를 선정하는 과정의 하나로, 목장 내 또는 진성(鎭城) 내에 목책으로 만든 원장과 사장 시설을 이용해 말들의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였다. 점마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절제사 또는 중앙에서 점마별감이 파견되기도 했다.

⑩ 조선시대 목장운영에 참여했던 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제주지역 국영목장이 병조·사복시·관찰사·제주목사·감목관(제주판관, 대정현감, 정의현감), 산마감목관·마감(또는 牛監), 군두, 군부, 목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마감목

관은 김만일 아들인 김대길을 초대 감독관으로 하여 200여년 동안 경주김씨 가문에서 맡아왔던 관직으로, 전국에서는 제주지역에만 존재했던 것이었다. 산마감목관과 김만일에 대해서는 『중종실록』, 『광해군일기』, 『제주읍지』 자료가 콘텐츠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⑪ 목축의례 자원들은 콘텐츠화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지방관아가 주체가 되어 행해졌던 마조제(馬祖祭)와 공마해신제(貢馬海神祭) 등은 의미있는 콘텐츠 자료들이다. 민간의 목축의례로 낙인코시, 귀표코시, 당의례, 백중의례가 있었다. 이들 목축의례들은 목축문화 복원과 계승에 중요한 콘텐츠 원천자료라 할 수 있다.

⑫ 제주지역 목축민들이 직접 우마를 기르며 만들어놓은 다양한 목축문화 구성요소들도 훌륭한 콘텐츠 자료가 될 수 있다. 척박한 토양환경 하에서 거름을 얻기 위해 제주 동부지역 주민들이 행했던 바령밭 만들기 전통, 해마다 이른 봄철 마을주민들을 동원해 잔초제거와 진드기 유충 제거를 위해 실시되었던 방앳불 놓기, 방목중인 우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잃어버렸을 때 소유주를 구별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낙인지르기, 목축관련 민요 등은 목축문화 콘텐츠 자료로 손색이 없다.

⑬ 제주마와 흑우는 목축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가축으로, 현재는 그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제주마의 다양한 이름과 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 제사용으로 이용되었던 제주흑우 이야기들도 충분히 문화콘텐츠로 구축할 수 있다.

⑭ 끝으로, 목축문화와 목축지명을 이용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동부지역인 구좌읍 송당리~포선면 가시리~남원읍 의귀리를 연결하는 지역은 목축관련 역사, 문화 체험 장소로 추천할 만 하다. 송당리에는 1소장, 해방후 국립제주목장, 가시리에는 녹산장, 갑마장, 마을공동목장, 조랑말체험공원 및 박물관, 갑마장길 걷기 코스, 의귀리에는 김만일 묘역, 김만일 생가터 등이 있어 제주도의 목축문화를 설명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목장사와 관련된 지명들이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라지는 목축(장) 관련 지명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목축지명을 이용한 현장답사도 유용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글은 조선시대 제주도 목축문화 자원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문화콘텐츠화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 접근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목축문화는 중산간 지대의 자연환경과 조선정부의 목마장 설치, 운영이라는 역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한마디로 전근대 시기 제주도사(濟州島史)는 목장사요, 목축문화사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요약하면, 문화콘텐츠 자료로서의 목축문화자원에는 자연환경자원, 목장역사자원, 목축문화자원, 목축 인적자원, 목축의례 자원 등이 있다.

이 중 목축문화 자원으로는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제주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거세, 낙인, 점마, 공마, 둔(屯) 방목, 감목관, 목자, 분전(糞田), 밭 밟기(鎭壓農), 잣성(牆垣) 등이 있다. 거세, 낙인, 둔(屯) 방목, 목자는 15세기 초에 등장하고 있어 이들이 몽골 목축문화의 유풍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전은 농경과 관련된다는 점, 잣성은 목장구획을 위한 돌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도적 목축문화의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목축의례 자원에는 지방관아에 의한 마조제와 공마해신제 그리고 민간에 의한 의례로 낙인코시, 귀포코시, 당의례, 백중의례가 있었다.

목축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위해서는 목축 문화콘텐츠 개발을 담당할 책임 있는 핵심주체 선정, 방송매체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 테우리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강사로 투입하는 테우리 학교운영, 목축문화와 관련된 음식콘텐츠 개발, 목축박물관 운영, 테우리(목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 <산장구마>와 <별방시사>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 마을공동목장조합, 목축문화 구성요소 등은 의미 있는 콘텐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목축문화의 보존과 콘텐츠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축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목축 관련 지명을 다시 사용했으면 한다. ‘물질, 물소, 테우리 동산, 물진밭, 물테왓, 바령밭’, ‘장통(牆桶)밭, 물장통, 장통알’ 서산장, 고마장, 좌가장, 모동장과 천미장, 1소장(所場)부터 10소장까지 목장명칭과 자장(字場) 명칭, 산장과 갑마장, 황태장과 곡장, 도(梁), 직사터, 점마청터 등 목축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지명들은 단지 『향토지』에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나왔으면 한다.

둘째, 점차 훼손되고 있는 잣성을 시도지정 문화재 중 <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 이미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 방어진 목장의 남목마성(南牧馬城)을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8호로 지정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고흥 절이도 목장성(高興折爾島牧場城)을 기념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제주시 회천동 3소장 하잣성, 표선면 가시리 번널오름 하잣성 및 따라비 오름 간장 등은 보호가치가 높다. 잣성은 국영목장을 건설하며 지역민들을 동원해 쌓은 목장유적이며, 중요한 목축문화 콘텐츠 구성요소이다.

셋째, 명맥을 잃어가고 있는 제주지역 목축문화의 주체인 테우리들에 대한 생활(애)사 조사가 시급하다. 최근 고령화되고 있는 제주해녀에 대한 생애사 기록작업을 위해 제주도청이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우마들과 함께 중산간 지대 산야를 손 끝 보듯 돌아다녔던 테우리들에 대한 생활사도 시급히 조사, 정리할 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되고 있는 테우리 1명이 사라지면 목축박물관 하나를 채울 수 있는 전통지식이 소멸되고 만다. 더 늦기 전에 각 마을별로 테우리들의 생활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제주지역에도 축산관련 전통지식기술(traditional knowledge and technology)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이 발간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전통지식기술모음집』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말의 복통치료법, 먹이에 제한 말 치료법, 소 고창증 치료법, 가축 마사지하는 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테우리들이 사라지면 이들이 우마를 사육하며 터득한 다양한 목축관련 전통지식과 기술들이 사라지도 말 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참고문헌

- 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육학 석사논문.
- _____, 2005, 「전통사회 제주도의 목축지명 읽기」, 『제주역사문화』, 제13·14호, 제주도사연구회.
- _____, 2006, 「제주도의 목축문화와 그 유적」,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 _____, 2007, 「조선시대 김만일 가게 산마장의 입지환경과 그 유적」, 『제주마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 _____, 2009,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塙垣)연구」, 『탐라문화』3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 _____, 2013,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경인학술총서 105), 경인문화사.
- 강만익·송성대,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영목장의 범위와 경관」,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통권 15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강민수, 1999, 『제주 조랑말』, 제주대학교출판부.
- 고광민, 1998, 「제주도 우마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통권 102호.
- 고문석·양성룡·장덕지, 2011, 『사진으로 보는 제주목축문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 高昌錫, 『濟州島古文書研究』(耽羅文化學術叢書 I), 2001,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 고창석, 김상옥 역, 2012, 『濟州啓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④), 제주발전연구원.
- 권무일, 2012, 『헌마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 평민사.
- 김나운, 2011,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러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논문.
- 김만석, 2010,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북코리아.
- 김양웅, 2005, 「불교문화 콘텐츠 구축 현황 및 방향」, 『전자불전』,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 김찬흡 외, 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 김 현 외, 2009,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의 실제』, 북코리아.

- 남도영, 2003,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오성찬 외, 1988, 『귀양객들이 낚이 스민 大靜고을』(‘제주의 마을’ 시리즈⑧), 도서출판 반석.
- 윤용출, 1986, 「15·16세기의 徭役制」, 『釜大史學』 제10호.
- 李 健, 『濟州風土記』, 金泰能(譯), 1976,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 이송이, 2011, 「종묘제례악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단국대 예술경영학과 석사논문.
- 李益泰, 1696, 『知瀛錄』, 金益洙(譯)(1997), 濟州文化院.
- 李英培, 1992, 「제주마 烙印의 字型 조사(I)」, 『조사연구보고서』 제7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李元鎭, 『耽羅志』(1653).
- 이형상 지음, 이상규, 오창명 엮음, 2009, 『남환박물관』, 푸른역사.
- 장덕지, 2007, 『濟州馬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 주강현, 2000, 「역사민속학의 단절과 복원」, 『역사민속학』 제11호, 한국역사민속학회.
- 정환영, 2004, 「백제문화 콘텐츠의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백제문화』제33호,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정창권, 2010,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 『濟州邑誌』(1785-1789) <濟州牧 牧場> 條.
- 제주도·제주도문화예술재단, 2007년,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7, 『제주축산사』.
-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007, 「濟州牧場救弊完文」, 『도영절차·영해창수록』(제주목사료집 제2책).
- 진성기, 2012, 『제주도민요전집』, 제주민속박물관.
- 허 권,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사논문.
- <http://www.cha.go.kr>(문화재청).
- <http://www.history.go.kr>(국사편찬위원회).
- <http://www.horsefestival.co.kr>(제주마축제공식홈페이지).
- <http://www.buriburi.go.kr>(제주들불축제공식홈페이지).